

주르차니 헝가리 총리 내외를 위한 만찬사

존경하는 주르차니 총리 각하 내외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올해 첫번째 귀빈으로 총리 각하를 모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경제인으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오신 각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크다고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사회정의와 진보'라는 각하의 정치 철학은 헝가리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헝가리의 저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1989년 동독 난민들을 위해 국경을 개방함으로써 독일 통일과 냉전종식의 물꼬를 텃습니다. 체제전환 이후에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성공적으로 받아들이고, 지난해에는 EU에 가입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나는 헝가리가 중부유럽의 핵심국가로서 더욱 왕성하게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총리 각하,

헝가리는 옛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 우리와 가장 먼저 수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냉전의 장벽을 허물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만큼 헝가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정은 각별합니다.

우리 두 나라는 닮은 점도 많습니다. 언어와 매운 것을 좋아하는 식성까지 비슷합니다. 또한 두 나라 모두 주변 강대국들의 각축 속에서도 민족의 자존과 정체성을 지켜 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헝가리는 중부유럽 국가 가운데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며, 세번째 투자대상국입니다. 이미 20개가 넘는 우리 기업이 진출해서 양국의 번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EU와 동북아시아 시장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상호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체결한 경제협력협정과 조속히 체결기로 합의한 사회보장협정도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총리 각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각하의 건승과 헝가리의 무궁한 발전, 그리고 우리 두 나라의 영원한 우정을 위해 축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